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치는 일본을 배우자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9·끝>기억하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일본 고베시의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의 슬로건이다. 센터 곳곳에 새겨져 있는 ‘1.17을 잊지 말자’는 문구는 1995년 1월 17일 발생해 6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신(오사카·고베) 대지진을 기억하자는 의미다. 센터는 한신 대지진의 ‘악몽’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새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건설, 운영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창경호(1953년·229명 사망·적재불량)→ 남영호(1970년·323명 사망·정원초과, 적재불량)→ 서해훼리호(1993년·292명 사망·정원초과, 적재불량)→ 세월호(2014년·사망 295명·실종 9명, 적재불량 등)까지 20년을 주기로 비슷한 유형의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아시아방재센터·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든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재해 사례·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자는 ‘외양간’을 갖춘다는 점에서 되새겨야 하는 대목이다.

▶일본 오사카 쓰나미·해일스테이션에 전시된 오사카 재해 피해 소식을 다룬 신문들. 일본에서는 지난 1896년부터 2007년까지 1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쓰나미·지진이 10차례나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해를 잊지 말고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지진 재해 기억공간. 지진 재해 자료, 피해자 체험담과 함께 전시해 놓고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뒤부터 복구까지의 생활, 거리 모습 등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영상체험실. 전면, 좌우측면, 바닥면 등 4면 영상을 통해 쓰나미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다.



터널, 3D 위험지도, 쓰나미 수칙, 비상 대피용 주머니 등 오감으로 쓰나미 발생 시 대응법을 배운다.

**‘6000명 참사’ 한신 대지진 교훈 삼아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해일스테이션’ 등
시민 위한 재해 교육·체험시설 갖춰**

**日 정부·지자체·기업 등 유기적 대책
아이때부터 매뉴얼대로 안전수칙 습득**

◇재해로부터 배운다=일본 고베시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는 5층 규모 건물에 지진 재해체험·지진재해 기억·방재, 감재 체험공간 등을 갖추고 찾는 방문객들에게 그 날의 악몽을 기억할 것을 환기시킨다.

60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1995년 한신 대지진과 같은 진도 7의 파괴력을 대형 영상과 음향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관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 발생 이후부터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체험담을 읽고 들을 수 있는가 하면, 끔찍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외다 오사카기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장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의 경험을 되새기고 교훈을 미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재해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한다”고 센터 운영 목적을 밝혔다.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뿐 아니다.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쓰나미·해일스테이션’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2009년 설립, 오사카시 방조제, 수문의 쓰나미·해일 방어시설을 관리하는 ‘방재동’ 외에 시민들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을 갖추고 ‘보고, 듣고 만지면서’ 재해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쓰나미·해일스테이션’ 직원 나이보리씨는 “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익히는 등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도록 꾸몄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과 바다, 좌우 측면을 하나로 연결한 영상으로 쓰나미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무로토 태풍(1934년 9월), 제인호(1950년 9월), 제2 무로토(1961년 9월) 등 오사카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3대 태풍의 피해 사진과 뉴스 영상 등으로 구성된 해일 피해터널 등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말자’는 경각심을 끊임없이 고취시키고 있다.

◇아이때부터 훈련, 반복 또 반복=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 이후 ‘반복’ 관심을 보이고 부러부러 대책을

만드는 국내 대과는 다르다. 당시의 경험 비록,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방재 대책을 정확히 진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재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식의 행동 요령을 아이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오사카의 전체 인구 880만이 참여하는 ‘880만 훈련’도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 특성상 언제든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과 율해로 세 번째 실시하는 등 지속성이 맞물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 재해 대응 시스템의 골자이기도 하다.

관내 방송과 옥외 스피커로 지진 발생 소식을 알리고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하면, 재해 발생 시 배낭 등에 넣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둔 소화기, 비상용품, 대피장소 등을 지도에 표시해 배포할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난 대비 훈련 내용도 ‘평소 준비가 당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방침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이다. 실내에 있을 때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피 요령을 비롯, ‘지진이 일어나면 우선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대피할 때는 걸어서, 짐은 최소화한다’, ‘고지대나 철근 콘크리트 3층 이상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부터 ‘지진 발생시 연락방법과 가족이 헤어질 때를 대비해 만날 곳을 정해둔다’ 등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갖추고 익혀 비상시 무의식적으로 안전 수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본 방재 교육의 특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 기획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사카 쓰나미·해일스테이션 내 해일피해터널. 높은 파도를 형상화한 터널에 오사카 지역 태풍 피해 사진과 뉴스 영상, 수물지역을 담아내 해일 재해의 참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